즉시 배포용: 2016년 9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기프트 카드 사용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조치에 관한 법률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기프트 카드 사용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S.4771E / A.7610E)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드에 사용자 수수료가 청구되기 전의 최소 기간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추가 제약을 마련하며, 기프트 카드의 만료일을 확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보호조치는 뉴욕 주민들이 숨은 비용과 수수료에 의해서 야금야금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기프트 카드를 구매할 때 별표를 기대하지는 않으며, 저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돈의 가치를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이 법률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미사용된 기프트 카드 잔액에 대해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는 기간이 13개월에서 25개월로 상향되었으며, 이 기간 이후에 적용되는 일체의 월간 서비스 수수료는, 소비자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포기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이 법률에서는 기프트 카드의 약관에서 분실 카드를 교체하기 위한 절차를 정확히 기술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어떠한 기프트 카드도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의 만료일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 상원의원 Rich Funk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가나 생일을 위해서 기프트 카드를 받은 후에 그것을 잘못 두었다가 나중에 그 카드가 이제는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것보다 더 좌절시키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돈은 그것이 몇 달 동안 소파 쿠션에서 분실되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돈으로서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법률에서 2년 동안 미사용 수수료를 금지하고, 모든 약관의 명료한 공개 의무를 부과하며, 분실 카드가 3년 이내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모든 위약금을 포기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상식적인 해결책을 뉴욕주 법률로 만들도록 도운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 및 주 하원의원 Dinowitz께 감사드립니다."

주 하원의원 Jeffrey Dinowit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소비자들은 미사용을 이유로 카드에 부과되는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서 쓰기 위해 남겨진 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자주 있습니다.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카드 판매로 이미 이익을 얻었으므로, 소비자들이 특정 기간 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수료 불이익을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프트 카드의 대가 전액을 지급한 소비자가 그 사용을 미루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자금을 상실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